
저자 (Authors)	심원섭
출처 (Source)	국토 , 2011.12, 30-37(8 pages) PLANNING AND POLICY , 2011.12, 30-37(8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51014
APA Style	심원섭 (2011).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관광활성화 과제. 국토, 30-37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11.48.46.*** 2020/04/29 15:3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관광활성화 과제

심원섭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평창동계올림픽의 의미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10년간의 도전이 마침내 성공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2011년 7월 6일 자정 무렵 TV를 지켜보고, 가슴 벅찬 환희와 감격을 경험했을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일깨워주었으며, 우리나라도 비로소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우리나라의 조그만 도시에서 시작된 노력과 열정이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마침내 세계인을 감동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이루어 내지 못한 한국의 경제발전 성공스토리를 유치성공 과정을 통해 압축적으로 보여준 쾌거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가장 큰 성과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더 높게 뒀다는 점이다. 국제적 규모의 스포츠 대회 유치는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최상의 수단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를 확정한 뒤 평화 · 선의 · 단합 등 올림픽정신을 내세운 대한민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세계 스포츠사적으로 우리나라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하계 · 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명실상부한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 1988 서울올림픽, 2002 월

드컵, 201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0 F1 코리아그랑프리,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5대 스포츠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스포츠 강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다. 그랜드슬램 달성에 프랑스 103년, 독일 57년, 이탈리아 573년, 일본 38년, 러시아 38년이 소요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이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동계스포츠 불모지에서 선진국 스포츠를 겨루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다는 의미도 크지만 동계올림픽이 국가 및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는 점 때문이다. 동계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축제가 아닌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로서 막대한 유·무형의 효과가 뒤따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파급효과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개최지인 평창과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발전과 국토발전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기관에서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 20조 4,97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8조 7,546억 원, 23만 명의 고용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올림픽 기간 동안 3,920억 원의 외국인 관광객 소비지출로 인해 약 6,68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천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유치에 따른 선진국 이미지 정착, 국민적 자긍심·자신감 고취 및 사회역량 결집 등 정신적 자산가치 창출, 세계를 향한 공동체의식 고양

등의 사회·문화적 효과, 한국의 위상 제고와 국가브랜드 가치 증대로 인한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관광·문화 인프라의 세계화, 관광산업 파급효과 등 관광효과를 제시했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기관(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평창올림픽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수치상 다소 편차를 보이지만 적게는 약 20조 원에서 많게는 60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추정된다. 그만큼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긍정적 효과가 그냥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기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국가에서 올림픽 유치 이후 엄청난 적자에 시달린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일본의 나가노 동계올림픽과 캐나다의 밴쿠버동계올림픽의 사례가 이를 잘 말해준다. 1924년 프랑스 샤모니 대회에서 2010년 밴쿠버 대회까지 국가나 지역 발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경우는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등 몇몇 사례밖에 없을 정도로 국가 및 지역발전 측면에서 동계올림픽의 성적표는 좋지 않았다.

올림픽의 개최를 위해 많은 재정투자를 한 지역들은 예외 없이 대회가 끝난 후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는 대회 자체의 성공적 개최만으로는 올림픽의 긍정적 효과가 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준다. 올림픽의 진정한 성공적 개최는 올림픽 이후 사용된 경기장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뿐만 아니라 효과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즉 방법론에 대한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첫째, 인프라 투자와 지역발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올림픽 자체의 성공적 개최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올림픽 개최의 방향에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과잉투자가 아닌 합리적인 시설투자 와 시설이용 고려, 추진체계, 재원대책,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될 것이다. 결국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인프라, 시설 등 하드웨어 투자가 아닌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창출'과 흑자를 위한 '합리적 시설운영'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올림픽 개최 이후까지 고려하는 지속적인 관광객유치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의 발전 테마인 '환경'과 '관광'을 올림픽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환경 자원 등 다양한 관광매력과 올림픽 시설을 연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세계적인 관광목적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강원도 지역 고유의 독특한 문화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셋째, 올림픽 이후 남게 될 시설운영에 대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동계올림픽을 치른 많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메가 이벤트 개최 이후 시설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사태의 방지를 위해서 비단 올림픽 개최뿐만 아니라 개최 이후 시설의 연계활용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익창출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자체나 국가의 재정부담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용도가 아닌 사후 활용까지도 고려한 시설개발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낙후지역인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통해 국토 동측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평창올림픽을 관광이나 지역산업발전과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평창올림픽이 또 하나의 국가 성장동력이 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스포츠 시설 개발이 아니라 지역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인 국토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평창올림픽을 통한 관광활성화 과제

성공적 올림픽을 위해서는 대회 성공적 개최 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 중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올림픽이라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관광산업을 연계시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동계올림픽은 다른 스포츠 행사와 여러 모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우선 스포츠 측면에서 기후와 지리적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설원과 자연 속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지역발전으로 승화시키기 힘든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 점이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에서 비교우위의 요소로 작용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둘째, 다른 스포츠 이벤트와 달리 실내에서 개최되는 경기보다는 실외 경기가 많다는 점에서 그만큼 지역과급력이 클 수 있다. 셋째, 상대적으로 고급 스포츠로 인식되는 종목들이 많으며 다수의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은 특정한 동계스포츠 시설집적지가 필요하고, 이는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런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 동계올림픽은 스포츠와 관광의 접목이 가능하고 이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관광올림픽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평창(강원도)이라는, 세계인들에게 낯선 지역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동계스포츠의 메카이자 세계적인 스포츠 휴양 명소로 변모시키는 것은 우리의 준비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성 가능한 목표다.

특히 최근 들어 관광의 형태가 관광과 유람 위주의 정적 관광에서 직접 즐기고 체험하는 것

을 선호하는 동적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고,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활동적인 레저형태로의 변화를 주도하며, 이러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노력으로 인해 다양한 스포츠 체험활동이 관광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세계적인 대중화가 스포츠 관광을 위한 관광을 촉진하며, 스포츠와 관광의 공통점인 정신적인 긍정효과도 스포츠관광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더불어 정보통신의 발달로 물리적·사회적·개인적 한계가 극복되면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인 점이다.

그렇다면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이 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목적지로 발전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목적지로 발전해왔다. 물론 최근 남해안, 서해안 등 관광목적지가 다변화됨에 따라 과거의 명성이 다소 퇴색하고 있지만 강원도 지역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목적지로 인식되고 있다. 강원도는 과거부터 영동고속도로 축에 많은 스키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계스포츠 리조트 지역으로 발전해왔으며, 최근에는 겨울철 동남아 스키관광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또한 강릉, 태백 등 강원도 지역은 좋은 기후조건과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활용해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으며, 동계에 많은 국내외 체육경기대회를 유치하면서 스포츠 도시로의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은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강원도 지역의 관광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리라 본다. 삿포로동계올림픽을 통해 삿포로 눈꽃축제가 세계적인 축

제로 도약했으며, 미국의 레이크플래시드와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가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스포츠 휴양도시로 거듭났듯이 평창도 동계올림픽을 통해 동계스포츠의 메카이자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강원도 지역의 동계스포츠 시설 인프라가 올림픽 개최를 통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올림픽 유치의 성공요인으로 꼽히는 콤팩트한 경기장 구성은 향후 평창 지역이 강원도 지역의 동계스포츠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 동계올림픽의 주 무대가 될 알펜시아 리조트는 동계스포츠 시설뿐만 아니라 워터파크, 골프장, 스키장 등이 들어서 4계절 활용 가능한 종합관광지의 면모를 갖추어 평창이 세계적인 스포츠 관광목적지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강원도 지역은 평창을 중심으로 많은 숙박시설과 최첨단 스키리조트가 자리 잡고 있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동계스포츠 및 스포츠관광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평창을 포함한 강원도 지역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포츠관광의 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첫째, 열악한 사회간접 시설이 해결되어야 한다. 강원도 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고 올림픽 유치 준비를 통해 스포츠 인프라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열악한 광역교통망과 관광시설 부족 및 시설낙후 등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중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미비한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과의 광역교통망 연계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올림픽 이후의 수요까지 고려하는 합리적 투자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관광 여건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특히 강원도 관광의 우선적인 해결과제는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시설 낙후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여름에는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 해변을 방문하고 겨울에는 스키를 즐기기 위해 영동고속도로 축의 스키리조트를 찾는다. 이로 인해 강원도 관광은 관광시즌의 높은 관광지 물가와 교통혼잡, 난개발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1980년대부터 개발된 관광지들이 대부분이어서 관광시설의 낙후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시장논리만 중시한 무계획적인 관광시설 개발도 문제다. 따라서 강원도 지역이 계절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복합 레저스포츠 관광목적지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적인 정비와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자연·문화와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 강원도를 단순한 올

림픽 개최지가 아닌 가보고 싶은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유인요소, 즉 강원도가 내세운 레저스포츠 도시에 착안한 콘텐츠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우선 스키를 핵심으로 한 동계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스키활동은 2000년 이후 급속히 대중화되면서 겨울철 레포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스키장도 단순 레저시설에서 복합 레저시설로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스키관광이 동남아 관광객들에게 겨울 관광상품으로 부상해 최근 한류열풍과 함께 연간 30만 명 이상의 스키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스키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명분인 “새로운 지평(New Horizons)”과 관련해, 기존 시장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으로 스키관광객 유치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산악자원을 활용한 건강지향형 스포츠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산악관광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휴양, 등산, 캠핑, 위락, 건강 등과 같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연 친화성과 신비성을 강조한 산악자원 중심의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 가치 창출 및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강원도의 산악자원과 연계한 건강 지향형 산악스포츠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류문화와 강원도만의 지역특화 콘텐츠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열풍을 활용한 연계상품 개발과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해 한류스타가 등장하는 홍보영상을 전 세계로 방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넷째, 지속적인 동계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한 연계 관광목적지 홍보가 필요하다. 국제대회를 통해 지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지역 이미지 제고다. 국제대회 개최는 지자체를 전 세계에 알리는 유용한 홍보수단이며, 특히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강원도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따라서 올림픽 개최를 통해 기 구축된 이미지와 여건을 활용해 국내외 동계스포츠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지역관광의 홍보전략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평창이 ‘드림프로젝트’를 통해 쌓은 신뢰와 희망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동계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해외 동계스포츠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다섯째, 동계올림픽 시설 역시 스포츠관광의 인프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올림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올림픽 경기장 시설의 활용 문제다. 평창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핵심 시설인 알펜시아 리조트와 미디어 빌리지가 추가 건설될 경우 46개 숙박시설 2만 5,542실을 보유하게 되어 향후 관광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기장 자체만을 목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다양한 활용도를 고려한 시설개발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시설 및 앞으로 들어설 경기장을 비단 경기유치뿐만 아니라 관광과 쇼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국제회의 및 이벤트 유치를 통해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설설계 과정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또한 올림픽 개최 시설을 개최 이후 지역주민 생

활체육시설 및 여가시설로 활용하도록 동계스포츠 시설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동계스포츠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동계스포츠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시아 지역 동계스포츠 저변확대의 플랫폼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창이라는 강원도의 작은 도시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종합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의 작은 도시 ‘평창’은 국제미디어에 수시로 등장하면서 유명세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강원도 평창에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새로운 관광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평창이라는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낙후지역인 강원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관광목적지로 만들기 위한 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평창올림픽 대비 관광활성화 종합구상’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과 오염되지 않는 환경을 지닌 강원도를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 · 경제 · 환경올림픽을 통한 지속가능한 올림픽 개최

평창동계올림픽이 국가 및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광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경제올림픽은 투자 대비 효과가 큰 올림픽을 의미하고, 문화올림픽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올림픽정신을 구현하는 올림픽을 의미하며, 환경올림픽은 전 지구적 문제인 환경가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올림픽을 의미한다.

관광은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등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이루어 내기 위한 좋은 대상이자 수단이다. 우선 경제올림픽을 위해서 올림픽 개최시설과 사후 활용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관광, 문화, 레저 등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환경올림픽을 위해서는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녹색올림픽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올림픽을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홍보전략과 동계올림픽 유산의 확산 및 동계스포츠 발전 프로그램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올림픽 유치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몇몇 선각자와 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하나가 된 국민들의 성원에 의해 유치가 성공했고, 이제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 및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림픽은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지구촌 최대의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다. 국가 및 지역 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많은 국가나 도시에 유치가 관심을 가진다. 이번 유치과정에서도 우리는 독일과 프랑스의 세계적인 도시들을 따돌리고 유치에 성공했다.

지금까지의 유치과정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 앞에 큰 과제가 놓여 있다. 어떻게 하면 세계 올림픽사에 남는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와 관광을 통한 올림픽 개최의 전후방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올림픽 행사 자체의 성공적 개최에 머무르기보다는 올림픽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인으로 삼아야 한다. 올림픽 유치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므로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아 문화올림픽, 경제올림픽, 환경올림픽, 관광올림픽을 이루어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가 및 지역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재학. 2011. "스포츠관광의 이론적 개념과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 연구 34(1), pp73-94.
- 김종. 2011. "스포츠와 관광의 유쾌한 만남". 웹진 문화관광 8월호.
- 김종민. 2011.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 새로운 지평 그리고 웅혼한 비상". 강원발전연구원 정책메모 제63호.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 임성준. 2011.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방안". 웹진 문화관광 8월호.
- 정충신. 2011. "평창, 문화올림픽을 위하여". 웹진 문화관광 8월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기간 외래관광객 지출 파급효과". 웹진 문화관광 8월호.
- 함석중. 2011.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한 지역관광 파급효과 극대화 전략". 웹진 문화관광 8월호.